

바닥 찍고 올라오나... 부동산 규제 완화에 힘 받는 건설주

건설업종지수 올 들어 반등세 급락했던 작년대비 분위기 상반 현대건설 연초 보다 8.17% 올라 건설업종 투자심리 개선 가능성

〈건설업 종목 주가 현황〉

종목명	2022년 증가	23.1.9 증가	등락률
현대건설	34900원	37600원	7.74%
GS건설	21150원	23150원	9.46%
대우건설	4180원	4505원	7.78%
DL이앤씨	33750원	36400원	7.85%
HDC현대산업개발	10000원	10550원	5.50%

/한국거래소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계획이 발표된 이후 건설업 관련 종목들이 올 들어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건설업종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35포인트(0.45%) 오른 77.99에 장을 마쳤다. 지난해 말 73.60에 장을 마감했지만, 올 들어서만 4.39포인트(5.96%) 오르면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큰 하락세를 보였던 건설업종 종목은 최근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지난해와는 상반된 분위기다. 건설업종 지수는 지난해 연초 115.08에서 시작해 연말(73.60)까지 1년간 36.04% 급락했다.

이는 지난해 코스피 내 대표지수 중 세 번째로 큰 하락률이며, 코스피 지수의 연간 하락률(24.89%)과 비교해도 11%포인트 이상 폭이 컸다. 그러나 올 들어서는 코스피 지수가 이날까지 5.09% 오른 가운데 건설업지수는 5.96% 오르면서 수익률을 상회하고 있다.

건설업종 지수에 포함되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7% 이상 오르면서 건설업종 지수 상승세를 이끌었다. 먼저 코스피 건설업종 내에서 가장 시총이 높은 현대건설의 경우 이날 중 3만7600원

에 장을 마치면서 연초 대비 8.17% 올랐다. 뒤 이어 ▲GS건설 2만3100원(9.22%) ▲대우건설 4500원(7.66%) ▲DL이앤씨 3만6400원(7.85%) ▲HDC현대산업개발 1만5500원(5.50%) 등의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다.

최근 정부가 집값 급등기부터 도입해 온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겠다고 밝히면서 건설주 강세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선 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 완화를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의 규제 완화를 시행했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 지역 등 부동산 규제(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를 해제했다. 여기에 전매제한, 실거주 의무 규제를 대폭 줄였으며, 미분양 급증을 막기 위한 청약시장 부양책 등을 함께 내놨다.

증권업계에서는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이 향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경록 신영증권 연구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대단히 전향적이어서 부동산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 넣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비록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어렵더라도 급매물이 소화되고 대규모 미분양을 일부 해소시킴으로써 추가적인 주가급락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다음달부터는 실적 하향조정세도 완화되면서 향후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는 평가다. 김선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건설사 실적 하향조정이 마무리되는 2월 이후 주택 지표 개선, 정부의 주택 규제 완화 등에 힘입어 건설업종에 대한 투자심리가 개선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영석 기자 ysl@metroseoul.co.kr

현금 혜택... 수수료 할인... 주식쿠폰

증권가, 새해 신규고객 유치 마케팅 '다채'

KB, 신한, 한화, 키움, 유진 등 주요 증권사들이 새해를 맞아 거래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다양한 이벤트 전략을 통해 신규 고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최근 신규 계좌 개설 고객에게 수수료 혜택과 국내 주식 쿠폰을 제공하는 '웰컴 2023 신규계좌 개설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이벤트는 생애 처음 신규 계좌를 개설하는 고객 대상으로 비대면 종합자산관리계좌(CMA)와 S-라이트 플러스, 은행 제휴 S-라이트 계좌를 개설하면 온라인 국내 주식 수수료 평생 혜택과 최대 7만원의 투자지원금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회사는 신한 알파 앱에서 비대면 계좌 개

KB, 해외주식 쿠폰 2만원권 증정 신한, 온라인 국내수수료 평생 무료 키움, 일정금액 입금시 현금 혜택 한화, 해외거래 수수료 할인 제공



/유토이미지

설 후 이벤트를 신청하면 주식 쿠폰 2만원을 즉시 지급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다음달 28일까지 온라인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내 주식 새해 선물 이벤트를 진행한

다. 회사는 온라인 계좌를 최초로 개설한 고객에게 1만원을 지급하고, 계좌 개설 당월에 국내 주식을 500만원 이상 거래(매수, 매도 포함)한 고객에게 3만원을, 계좌 개설 당월을 포함한 3개월 연

속 월 1000만원 이상 거래한 고객에게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밖에도 온라인 신규 고객들은 국내 주식 거래 시 0.003639%의 거래수수료(코스피, 코스닥)를 평생 우대 혜택으로 제공한다.

한화투자증권은 신규고객과 휴먼고객을 대상으로 첫 새해 이벤트 국내외 주식 '투자의 첫 수'를 진행했다. 회사는 비대면 계좌 개설 시 모바일(SmartM) 국내 주식 거래수수료 평생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회사는 해외주식 이벤트의 경우 생애 최초 해외주식 거래 신청 고객을 대상으로 거래 신청 당일부 터 1년 동안 미국 주식 0.069%, 중국·홍콩 주식 0.15%의 모바일(SmartM) 거래수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키움증권은 새해를 맞아 중개형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좌에서 주식·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수수료 할인 쿠폰 5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2월 말까지 진행한다. 추가로 이벤트 기간 내 100만원 이

상 입금하면 최대 3만원 현금 혜택도 제공받을 수 있다.

KB증권도 해외주식을 최초로 거래하는 개인 고객들에게 해외주식 쿠폰과 함께 거래 금액에 따라 해외주식을 제공하는 '2023년 신년 맞이 복주머니 증정' 이벤트를 3월 10일까지 진행한다. 회사는 신청 고객 전원에게 해외주식 쿠폰 2만원권을 증정한다. 또한 이벤트 신청일로부터 1개월 동안 해외주식 거래 금액 100만원·500만원·1000만원·5000만원 이상인 구간에 따라 1만원·2만원·3만원·5만원 상당의 해외주식이 들어있는 복주머니를 랜덤으로 증정한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에는 증권사들이 매년 신규고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해왔다"며 "특히 최근 이벤트들은 오프라인 고객보다는 비대면 계좌개설에 이은 거래가 많고 향후 연금 자산관리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관희 기자 wkh@

"실생활서 찾은 알짜 저평가株... 이미 실적개선중"

株라쿨라의 종목

하이로닉, 홈뷰티 수요 증가 수혜 가온전선, 구리가격 상승기 진입 디지털대성, N수생 인한 고성장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음 최성환 대표이사가 올해 실생활에서 주목해야 할 종목으로 ▲하이로닉(홈뷰티 디바이스) ▲가온전선(미국 전선, 통신 인프라 확대) ▲디지털대성(독서 토론 논술)을 꼽았다.

9일 최성환 리서치알음 대표이사는 "실생활을 통해 얻은 종목은 어려운 내용이 없고, 유행과 인기 체감을 통해 매도 시기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며 "각 종목은 모두 실생활을 통해 얻은 것으로써 이미 실적개선이

진행되고 있지만, 주가는 아직 오르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피부미용의료기기제조·판매기업인 하이로닉은 마스크 의무화 해제로 본격 수혜를 입을 것이라 분석이다. 최 대표는 "하이로닉은 올해 미국, 중국 등 해외 매출비중 확대로 수익 개선이 기대된다"며 "2020년 홈케어 피부관리 기기 '홈케어'를 출시했는데, 홈케어는 피부 관리습에서 전문 기술을 받은 듯한 관리가 가능해 수요 증가 중"이라고 말했다.

전력케이블및 통신케이블제조·판매 기업인 가온전선은 미국 수출 비중이 높아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 미국 에너지부에 따르면 미국 송전선의 70%가 25년 이상된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미국 수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는 전선 기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또 가온전선 수익에 가장 긍정적인 환경은 전기동(구리) 가격이 완만한 상승기에 진입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대성은 초중고 교육 프랜차이즈 기업이다. 초중등 사업으로는 독서논술 콘텐츠(한우리)가 대표적이며, 고등 사업에는 온라인 강의(대성마이맥), 기숙학원(대성기숙학원) 등을 영위한다. 베트남 등 국제학교 설립으로 중장기 성장동력도 확보했다.

최 대표는 "올해부터 정시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며 "이에 따라 N수생 역대 최대를 예상해 대입 전문 플랫폼 '대성마이맥'의 고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미경 기자 mikyung96@

증권사 신용거래 이자율 공시방식 개선

금감원, 비대면·대면 이자율 구분 산정방식 등 투자자 확인사항 개선

증권사의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공시방식이 투자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된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신용거래용자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돕기 위해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공시방식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증권사는 매월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기간별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등을 공시하고 있다. 그러나 대면 계좌개설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이자율 위주로 공시하고 있어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한 투자자는 이자율 정보를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설방식별 이자율 공시를 신설한다. 대면 및 비대면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을 홈페이지 화면에서 구분 공시해 투자자가 이자율을 직접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이자율 산정방식 등 투자자가 궁금해 할 만한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한다. 그간 신용거래용자 시 이자율 산정방식 등에 대한 투자자 안내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있었다.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구체적인 이자비용도 안내된다.

투자자가 100만원을 용자하고 90일을 연체하는 경우 부담하게 되는 이자·연체비용을 금액으로 표기하는 등 구체적인 용자 상황에 대한 예시를 들고 세부 이자비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선 대면·비대면 이자율을 작성한 파일을 금투협 홈페이지에 첨부해 투자자가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올 1분기 중 협회 홈페이지 공시 화면 개선 및 서식 개정을 추진, 계좌 개설방식별 이자율 등이 충분히 공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